

교육부-문체부 함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 모은다.

-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 만나 초등 체육 강화, 학생건강
체력 향상, 효과적인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7월 4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문체부 학교체육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이 참석하여 지난 4월 국가교육위원회의 초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결정과 관련하여 향후 학교 현장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한다.

※ (국가교육위원회)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 통합교과로 분리 및 2022 교육과정에서 축소되었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2015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유지 결정

또한, 초·중·고 학생들의 신체활동 확대에 필요한 현장 지원, 학생건강체력 증진,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안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신설되는 초등체육 관련 교과 운영에 대비한 시설 확충, 교원 연수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등 초등 체육수업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방안과 초등 스포츠 강사의 효과적 운용, 전 생애에 걸친 체력 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와 ‘국민체력100’의 측정 항목을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다.

특히, 교육부는 변화되는 초 1·2학년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적용·운영 되고, 학생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 등을 도모하는 체육 활동 강화를 위해 초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체육시설 확충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문체부와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 학생선수 저변 확대 및 행·재정적 지원,

최저학력제 적용, 대회·훈련 참가 시 출석 인정 등 학생선수 육성에 관한 제도 개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바탕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양 부처 차관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기존 국장급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정례화하고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지속 해서 운영해 나가자고 뜻을 모은다.

오석환 차관은 “학교체육은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 공정한 경쟁 및 협력, 배려, 타인 존중 등 체·덕·지를 겸비한 전인적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며, “학교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 가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운동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전문 운동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교육부-문체부 학교체육 정책협의회 개최 개요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책임자	과 장	김세봄	(044-203-6985)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대진	(044-203-6990)
		담당자	주무관	김소연	(044-203-6992)
문체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책임자	과장	표광종	(044-203-3131)
		담당자	사무관	이지은	(044-203-3134)

교육부-문체부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회 개최(안)

□ 행사 일정

- 행사명 : 교육부-문체부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회
- 일 시 : 2024. 7. 4.(목) 10:00~11:0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14-2동 530호
- 참석자 : 차관님, 장미란 문체부제2차관

□ 주요 협의 내용(부처 간 협력사항)

- 초등체육 교육과정 내실화
 - (초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 교육과정 개정 후 체육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원 전문성 신장, 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초등 스포츠강사 운용) 현행 초3~6학년 체육수업 운영에 참여하는 스포츠 강사 예산 분담과 효과적인 운용 등에 관한 논의
- 학생 건강체력 증진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와 성인 '국민체력100'의 측정 종목을 점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등 전 생애 걸쳐 체력 관리 기반 조성
- 학교스포츠클럽과 전문체육(엘리트) 연계 강화
 - 일반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저변 확대와 우수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다양화 등 모색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등 학생선수 육성 제도 개선 방안 등

□ 향후 계획

- 국·과장급 실무 협의회 개최하여 구체적인 추진 사항 논의